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즐거운집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은 지난 8일 광주 각화동 소재의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시설 '즐거운집'을 방문해 후원금 120만원을 전달했다.



상무수치과 김수관 원장 긴급의료비 지원
광주 사랑의열매는 상무수치과의원 김수관 원장이 긴급의료비 2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웃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주거개선 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가 추석 앞두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독거세대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광주준법지원센터는 9일부터 10일까지 북구 우산동과 중흥동 소재 해당 세대에 직접 방문해 주거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돕는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 세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광주 북구

우산동주민센터와 중흥동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5명, 어울림사랑나눔봉사단원이 참여한다.
이동환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깨끗하게 정리된 환경을 제공하게 돼 다행이다"며 "보호관찰소는 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농협,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농협광주본부가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매년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앞마당에서 최근 추석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과 광주축협 및 하나로유통 호남지사가 함께 참여한 검찰청직거래장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각종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농협목우촌제품 등이 시중가보다 최고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돼 장터를 찾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농협관계자와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박찬호 검사장, 정진용 차장검사, 윤성진 사무국장 등 관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마케팅에 참여해 직거래활성화 및 매출실적 확대에 기여했다. /우성진 기자

“오랜 경험·연구로 다양한 유기농법 개발”

전남 유기농 명인 안명순·김주현씨

안, 자연순환농법 친환경 재배·전문기술 후배에 전수
김, 어분·쌀겨 직접 만든 퇴비·야채효소 병해충 관리

“저비용·고품질 유기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연구로 독창적 농법을 적용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해 유기농 농법을 확산하고 있는 안명순·김주현 씨가 올해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됐다.
‘유기농 명인’은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유기농 재배 농가를 홍보해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성 청우다원을 운영 중인 안명순 명인은 2001년부터 녹차 친환경재배(14ha)를 시작해 2013년 녹차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 및 국제유기인증까지 획득했다. 현재 21종의 차 관련 브랜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보성녹차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안명인은 고품질 녹차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신념으로, 자연순환농법과 유기농 퇴비를



안명순씨



김주현씨

한 잉여농산물 등을 이용한 야채효소(자가제조액비)를 만들어 유기농업에 최적화된 병해충 관리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김명인은 울금, 단호박, 양배추 등 20개 품목도 유기농재배 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명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유기농 명인 지정서’를 전달하고, 농장 입구에는 ‘명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명인이 개발한 유기농재배와 유기농 기술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전수

하도록 유기농업 전문교육강사로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24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이들을 활용해 유기농 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홍보하는 등 전남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고 있다. /길용현 기자

물환경산업 육성·혁신성장 맞춘

영·섬유역본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K-water 영·섬유역본부는 9일 전남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대와 물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전남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지역의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광주-전남 물산업 실증센터 구축, 기관별 보유 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등 협력을 통해 지역 물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을 대비해 물산업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업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미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섬유역본부 양진식 본부장은 “광주 전남 지역에 물산업 실증센터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

광주 광산구-대구 수성구 ‘행복동맹’ 체결

청소년·공동체 활성화·행복증진 등 우수 정책 교류

광주와 대구를 잇는 ‘행복동맹’ 깃발이 울렸다.
광산구는 9일 대구 수성구를 방문, ‘행복동맹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광산구와 수성구 주민 행복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공동체 활성화·행복증진 등 양 기관의 다양한 우수 정책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약에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및 청소년 분야 교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행복 증진 협력사업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및 인적자원 연계 ▲도시농업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광산구와 수성구는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사항의 분야별 이행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하며 ‘행복동맹’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금까지 광주와



대구의 연대·협력은 위기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며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축진제가 됐다”며 “광산구와 수성구의 행복한 동행은 영·호남 화합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Advertisement for '전매게시판' (Online Marketplac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available.